조계종 산하 연구소들 '싱크탱크'로 통합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 조직개편 방향 브리핑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육원·포교원' 종헌서 삭제
재건축 앞서 건물 철거 의미
"역량 분산보다 집중이 필요"
연구소 통합, 규모 확대 계획
종헌 개정 후 전 종도 공청회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헌에서 삭제해 총무원의 중앙종무기관 단일화 작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이 향후 조직 개편 시 종단 산하 연구소들을 묶어 종책을 개발하는 이른바 '싱크 탱크(think tank)'를 구성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조직 개편 이후 출가 장려와 포교가 더 강화되도록 총무원장이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사진〉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조직 개편에 앞서 필요한 종헌 개정 취지와 향후 방향성을 설명했다.

우봉 스님에 따르면 조직 개편을 위한 1차 밑작업은 종헌 개정이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지금처럼 종헌 기구로 남아있으면 3원 통합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원과 포교원 조항을 삭제하는 종헌 개정은 사실상 재건축에 앞서 필요한 기존 건물 철거인 셈이다.

우봉 스님은 "교무·전법·문화·복지·대사회 활동 등의 동력 제고를 위해 총무원장이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총무원 전체 역량이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는 종단 산하 연구소의 통합도 포함된다. 현재 산하 연구소로는 미래본부 내 불교사회연구소, 교육원 불학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있다. 총무원은 연구소들의 활동이 각자의 영역에만 국한되면서 종단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종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출가' 업무는 현행 직제에서 담당 부서가 없을뿐더러 별도 종책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교육원이 출가 장려를 위해 홍보사업을 하고, 출가상담사를 운영했지만 교육원의 주 업무는 행자·기본·전문 교육과 승가고시 등이다. 이로 인해 사안에 따라 위원회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우봉 스님은 "앞으로 획기적인 종책이 필요한데 세 연구기관이 각자의 연구만 하면서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 분산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연구소를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제대로 된 종책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은 오는 3월 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원로회의,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종헌 개정 이후에는 전 종도를 대상으로 한 조직 개편 관련 공청회를 수차례 열어 지혜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무원은 3원 통합도 하나의 안일뿐 공청회를 거쳐 더 좋은 안이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봉 스님은 "조직 개편은 특정한 속내를 갖고 추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종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종단은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계원이라는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기에 3원 통합을 총무원장의 권력 집중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총무원·종회 각각 발의 예정

조직개편 필요성 부각 차원…설명 자료도 배포

조계종이 1994년 종단개혁 이래 30년 만에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첫 단추인 종헌 개정을 위해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각각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같지만 조직개편이라는 화두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로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논의해온 의견들을 추려 임시회에 발의할 종헌 개정안을 성안했다.

개정안은 교육원과 포교원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현행제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같다. 다만 현행 종헌에서는 총무원장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대표직 겸임이 제한돼 현실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키로 했다. 이는 총무원의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추가 의견을 다룬 것이다.

미래특위는 이 같은 종헌 개정안을 중앙종회와 총무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미래특위를 구성하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점을, 총무원은 조직개편 당사자로서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취지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총무원과 미래특위가 각각 종헌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병합해 통과시킨다면 제2의 종단개혁이라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다른 위원스님들도 30년 만의 일이라는 점, 종헌 개정은 종회가 앞장서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더불어 총무원과 미래특위는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전 종도들에게 종헌 개정,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알리는 간략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탄자니아에 아동센터 건립 추진한다

아름다운동행, 제20차 이사회
사업성과 및 올해 계획 논의



아름다운동행 이사진이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해 일군 사업성과를 되짚어보고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름다운동행은 3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2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아름다운동행은 먼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의논했다. 2024년 주요 활동국가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꼽은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에서의 불법 홍보와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법당과 보리수 아동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법당과 아동센터는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모금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과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옥수수영양죽을 선물하는 해피콘 사업 등 해외지역개발사업 역시 지속운영할 방침이다.

국내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짜장공양'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한다. 정기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접 짜장면 공양을 나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자 참여 및 대면 봉사활동을 확대한다. 개안수술, 소아암 환아지원, 위시박스,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지원사업 등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도 꾸준히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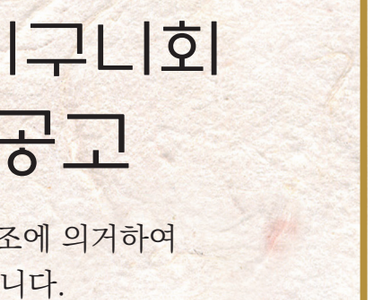
지난해 사업성과도 발표했다. △2023년 총 모금액 102억원 달성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겨울철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대면 봉사 활동 및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나의유산만들기' 성료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모로코, 국가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에 물자 지원 △국내 집중호우 및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시행 △국내 저소득가정 지원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 안정화 등 성과를 발표한 아름다운동행은 이를 밑거름삼아 향후 추진할 사업에 진력할 방침이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과 감사님께 감사하다. 아름다운동행은 국내사업은 물론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하는 등의 해외사업도 진행 중이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하동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임명

총무원장 진우 스님, 3월 6일 임명장 수여

종로 대각사 종원 스님 재임



조계종 제13교구본사 하동 쌍계사 주지에 지현 스님이 임명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앞서 쌍계사 주지후보로 선출된 지현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쌍계사는 고산 큰스님께서 주석하셨고, 과거 진각 국사가 차를 가져와 부흥시킨 차의 시배지와도 같다"며 "앞서 주지를 역임하신 영담 스님께서 교구장으로서 고산 큰스님의 유지를 잘 이어온 만큼 지현 스님도 쌍계사 교구 위상을 높이고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지현 스님은 "회주이신 영담 스님께서 일궈놓은 불사를 잘 받들고 종단 불사에도 외호하며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지현 스님은 임명장을 받은 뒤 조계종 주요 종책불사인 '천년을세우다'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조계종 직할교구 종로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은 같은 날 재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직할사찰인 대각사의 가람 수호와 대중포교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종원 스님은 "대각사는 초하루와 보름, 관음·지장·약사재일 법회까지 월 5번의 법회를 보고 있다. 소임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8차 정기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8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사업 승인 및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상정 토의할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2568(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T. 02-3411-8103)
■ 안 건 : 1. 2024년 사업승인 및 예산심의의 건
2. 법인 감사 보고의 건
3. 운영위원회 보고의 건
4. 조직개편 보고의 건
5. 기타 안건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불기2568(2024)년 3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